

# 전국 유일 입식우 이차보전사업 급부상

### 임실군, 코로나19 영향·송아지값 상승으로 어려움 겪는 축산농가에 큰 보탬

임실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인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이 코로나 여파 속 주목받는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입식우 보전사업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총 이차 5%(고정금리) 중 군비 4%를 지원해 축산농가의 기반구축을 잡려하기 위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한 정책이다. 농가부담 1%로 축산농가의 입식우 기반확충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임실군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추진 중인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이 코로나 여파 속 주목받는 정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코로나 영향과 송아지값 상승으로 앞전데 앞전 격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은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코로나로 사람의 왕래가 더욱 끊겨 더욱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고령의 영세 축산농가에는 한우가 위로가 되는 친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은 임실군 한우농가, 특히 영세한 소규모의 어르신들의 소득증대에 효과가 큰 대비와 같은 정책이다. 게다가 최근 송아지값 상승으로 입식비용이 증가한 축산농가에

금융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임실군 번식우 기반 확충에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군은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으로 지역 내 많은 축산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내용에 대한 적극 홍보와 꼼꼼한 추진에 만전을 다할 방침이다.

특히, 청정지역 임실에서 자란 명품 입식한우를 육성해 청정한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축산업을 더욱 활

성화 시켜 나갈 계획이다.

심민 군수는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한우 입식우 이차보전사업으로 송아지값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청정임실에서 군민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많이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클린순창만들기 추진단' 본격 운영

### 11개 읍면 방치된 쓰레기 수거

순창군이 이달부터 '클린순창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 운영에 들어가며 그간 미간을 찌푸리려 했던 방치된 쓰레기들을 전량 수거하고 나섰다. 군은 지난 2일부터 추진단을 운영해 하천, 논밭, 산간지역 등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를 수거하며 불법투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쓰레기 수거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11개 읍면에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중인 추진단은 매일마다 적게는 200kg에서 많게는 1,000kg에 이르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수거하며 12월 기준으로 12톤 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했다.

5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지난 2월 공개모집을 통해 서류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추진단을 이끌 가장 최적의 인원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작은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클린순창 만들기를 위한 발동부대로 그 역할을 톡톡히 해

내고 있다.

산간지역이나 하천 등 그동안 지역 주민들이 치우기 어려웠던 대형 생활 쓰레기부터 위험지역에 방치된 쓰레기까지 직접 수거하며 순창의 이미지를 새롭게 하고 있다.

추진단은 11개 읍면에 방치된 쓰레기를 집중수거하는 동시에 영농철을 맞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폐비닐 수거에 집중할 계획이다. 봄철 폐비닐 제거작업에 나서는 농가들이 폐비닐과 함께 생활쓰레기를 함께 버리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이를 집중단속하며 군민들의 계도활동에도 나선다.

/순창=이양원 기자

## 임실군,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개최

임실군은 최근 군청 회의실에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유도과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귀농귀촌 지원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조호일 부군수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2020년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자 103명을 선정하고 군비 3억8,6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대상은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사업 신청일 기준 임실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세대주가 신청 가능하다.

소득사업 및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은 귀농인에게 경제작물, 임산물 등 소득에 필요한 사업으로 가구당 최대 10백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구입 신축 및 수리 지원사업은 귀농·귀촌 거주 안정을 위하여 가구당 최대 500

만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정착지원금, 현장 실습비, 교육 훈련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하여 지원한다.

군은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해 서면심사, 현지조사, 위원회 의결 등 3단계를 걸쳐 추진했다. 특히, 현지조사는 7개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현미경 심사로 진행됐다.

심민 임실군수는 "임실군은 청정지역으로 귀농·귀촌인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귀농귀촌인의 어려움 해소는 물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행정의 모든 사진, 영상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 홈페이지 '춘향찰각'을 3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했다.

## 남원시 홈페이지 '춘향찰각' 공개

### 1960년대-현재까지 행정 모든 사진·영상자료 한눈에

남원시가 1960년대부터 지금까지 행정의 모든 사진, 영상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시 홈페이지 "춘향찰각"을 3월부터 시민에게 공개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춘향찰각은 남원의 현대판 자치통감이라 부를만한 사진·영상 저장소(아카이브)로, 중국 송나라 정치가 사마광이 편찬한 책에 대해 당시 황제 신종은 책의 제목을 자신의 소감으로 정해 '자치통감(資治通鑑)'이라 이름 붙여 유래되고 있다.

최근 아날로그시대에서 디지털시대

로 진화되면서 아날로그 기록의 디지털 전환에 고심하던 남원시는 (2006년 7월 이전) 쌓아둔 아날로그 사진과 영상을 디지털화하고 모아둔 자료 역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아카이브(기록보관소) 작업을 시작했다.

남원시 행정자료는 사진 20만장, 비디오 테이프 1,000여개, CD 200여개와 각종 신문스크랩 등으로, 이들 자료를 디지털화해 남원시의 모든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홍보관리 시스템을 만들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이환주 남원시장이 역동적인 시장추진을 위해 지난 11일과 12일 2일간 주요사업현장 16개소에 대한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 남원시, 주요사업현장 현장행정 추진

### 이환주 시장, 16개소 찾아 추진상황 청취·현장근무자 격려

이환주 남원시장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자칫 소홀할 수 있는 행정을 챙기고, 역동적인 시장추진을 위해 지난 11일과 12일 2일간 주요사업현장 16개소에 대한 현장행정을 추진했다.

평소 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소신에 따라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수시로 추진해 오면서 사업현황을 세심해 점검했다.

이 시장의 이번 현장행정 주요사업장은 남원관광지 민간투자개발사업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 ▲제2노인복지관 건립 ▲생활체육시설

확충 ▲남원형 일반산업단지 조성 ▲도시가로망 정비사업(교통대로, 신정대로, 시청로) ▲도시재생사업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장 등이며, 현장에서 해당 부서장과 관계자로부터 추진상황을 청취하며 사업 전반적 사항을 꼼꼼하게 살피고 현장근무자들을 격려했다.

또한 이 시장은 현장 책임자들에게 "안전관리 강화와 공정관리에 최선을 다해 예정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지역 소식통

### 순창, 퇴비 부속도 검사 안정적 정착 최선

순창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1년간은 계도기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법적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비 부속도 검사 의무화는 부속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군은 계도기간이라도 미부속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악취 민원 유발(2회 이상),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시에는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남원시,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 당부

남원시가 지역농업인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업기계 종합보험 가입을 당부하고 나섰다.

남원시는 최근 농민들의 농기계종합보험가입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50%에 더하기 지방비 30%(기준 25%)로 지원하고 있다.

보험대상자는 농기계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자)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자로 연중 누구나 가까운 농(축)협 영업점에서 가입할 수 있고, 가입기간은 1년으로 교통사고, 도난, 수리비,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 신체사고, 위자료, 사망 유족급여금 등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금연캠페인